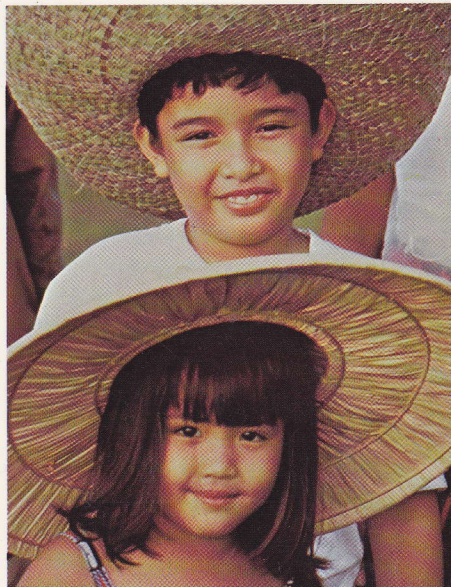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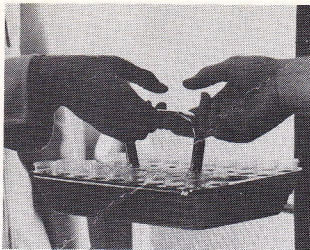




성도의 빛 4

1983





7

20

31

성도의 빛 4

1983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블
매리온 지 롬니
고든 비 힝클리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퍼터슨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토마스 에스 몬슨
마이트 케이 패커
마빈 케이 애쉬튼
브로스 알 맥콩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교문

엠 러셀 벨라드 이세
로렌 시 던
렉스 디 피네가
찰즈 에이 디데이
조지 피 리
에프 엔지오 부쉬

성도의 빛 1년 정기
구독료는 3,500원입니다.
일반호의 1년 구독료는
4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년 구독료는
8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빛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지 설명: 앞 표지, 상좌: 필리핀을 상징하는 불소 원목부터: 필리핀 중남부의 카누, 농부들의 모자를 쓴 두 명의 필리핀 어린이,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 있는 리잘 공원의 풍선 장수, 하: 에이티 칠의 레드 비치의 바닷물에서 나오는 새로운 개종자의 선교사들.
뒷 표지, 상좌: 마닐라 산토 토마스 대학의 넓은 교정에 자리잡은 본관, 하, 왼쪽부터: 마닐라의 모트 센터아고에서 자라고 있는 아름다운 색깔의 식물: 리잘 공원에서 본 마닐라 안: 마닐라의 금융가인 아얌라 지리(사진: 리차드 엠 톰니).

차 례

“이에 베드로는 밖에 나아가
심히 통곡하니라”.....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1
그의 이름을 받들어아디스 지 캡..... 7
질의 응답 14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모린 데릭킬러.....17
릿셀 엠 빌슨레이 존슨.....20
균형을 유지함오 던 오스틀러.....27
세이부의 비밀리차드 엠 톰니.....31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38
형에게 친절을네나트 랄슨.....40
울새가 하늘 나라로 갈까요?앨리스 스트래튼.....43
지역 지도자 메시지.....박 재암 서울 영동 스테이크 부장.....46
지역 소식 48

통 권: 제213호, 제19권 제4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1983년 4월 1일(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유진 피 톨
번역: 한국 번역 출판부 ☎ 724-6832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계 구좌 514091
인쇄인: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권 수

STOCK NO. PBMA0562KO PRINTED IN SEOUL, KOREA 4/83 International magazine

© 1983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련 소유

최후의 만찬을 끝내고 나서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감람산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무서운 시련이 가까이 온 것을 아신 그리스도는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며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찌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

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마태 26:31, 33-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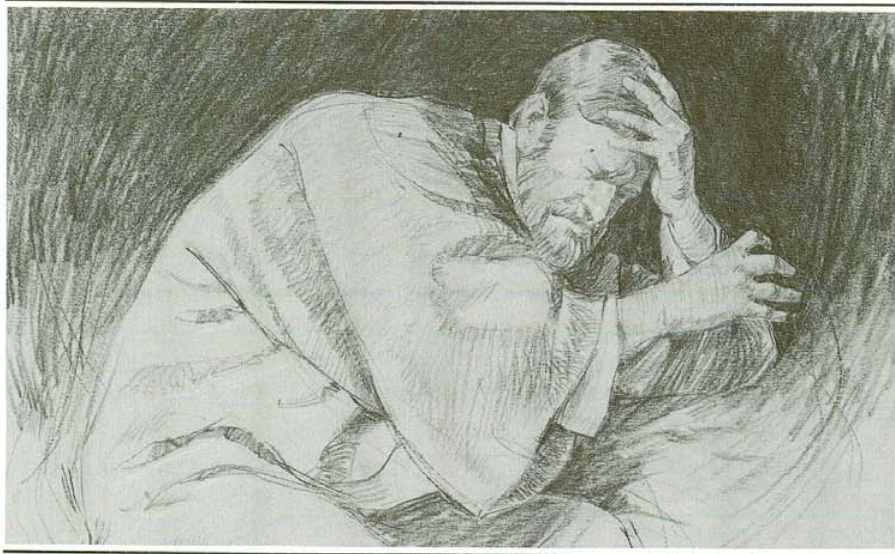
그러니 얼마 안 있어 갓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심한 고난이 있었고 그리고 배반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의 행렬이 가야바의 뜰로 갔을 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좇아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걸국을 보려고 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마태 26:58)

거짓 재판이 계속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이 얼굴에 침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하는 동안 한 비자가 베드로를 보고 “너도 갈릴리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였읍니다.

“이에 베드로는 밖에 나아가 심히 통곡하니라”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마태복음 26:69-75)

이 이야기 안에 담긴 슬픔이 참담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그는 충성과 결심과 각오를 맹세하면서 결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보다 인간을 두려워 하는 마음이 생기고 육체의 나약함이 그를 덮쳐 고발당하려는 압박 속에 그의 결심은 산산히 부서졌습니다. 그런 다음 그의 잘못과 나약함을 깨닫고,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베드로에 대해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들 중 많은 사람이 그와 너무나 같습니다. 우리는 충성을 맹세합니다. 담대하고자 하는 우리의 결심을 확언합니다. 때로는 공개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바른것을 행할 것이며 올바른 주장을 지지할 것이며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성실할 것이

라고 공언합니다.

그런 연후에 압력이 가해져 오기 시작합니다. 때로 이것은 사회로부터 오는 압박이기도 하고 때로는 개인적 욕구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야망일 수도 있습니다. 옳은 것을 행하고자 하는 결심이 약해집니다. 스스로를 단련하는 기율이 해이해 집니다. 유혹에 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후회와 자책, 회한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의 매일같이 목격하게 되는 큰 비극중 하나가 높은 목적을 가졌으나 그것을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의 비극입니다. 그들의 동기는 훌륭합니다. 그들이 표명한 야망은 찬양할 만한 것입니다. 그것을 성취할 그들의 역량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를 단련하는 기율이 약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태함에 굴복하고 맙니다. 욕망이 그들로부터 결심을 빼앗아 버립니다.

옛날에 내가 알고 있던 교회 회원이 아닌 어떤 사람의 생각이 납니다. 그는 좋은 대학의 졸업반이었습니다. 그의 가능성은 무궁했습니다. 최고의 학벌과 성공을 위한 모든 기회가 주어진 젊은이로서 그는 일대 스타를 꿈꾸며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처음 그를 채용한 회사에서 그는 이 직책에서 저 직책으로 보다 큰 기회를 가지며 승진을 거듭하였습니다. 많은 세월이 걸리지 않아 그는 회사에서 정상의 자리중 하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승진은 그로 하여금 자주 술자리에 앉게 하는 사회적 위치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그는 이러한 일에 잘 대처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자신이 제어할 수 없는 욕망의 희생이 된 것입니다. 그는

도움을 구했으나 너무나 자존심이 강하여 그를 도와 주려는 사람들이 그에게 내리는 제한에 따라 스스로를 단련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비극적으로 타면서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떨어지는 별처럼 스러졌습니다. 나는 그에 대해서 이 친구 저 친구에게 물어본 결과 마침내 그의 비극적인 종말에 대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것처럼 높은 야망과 인상적인 재능으로 시작한 그가 우리의 대도시들 중 어느 한 곳에서 지극한 가난 속에 죽어갔습니다. 나이든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그도 자신의 힘과 스스로의 가능성을 성취하기 위한 자신의 역량을 확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능력을 부정한 것입니다. 실패의 그림자가 그를 덮었을 때 다시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그는 밖에 나아가 심히 통곡했음에 틀림없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또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오래 전 내가 영국의 도서지방에서 선교사로 있었을 때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담배를 즐겨 피웠습니다. 교회 회원이 된 초기에 그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고 주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의 습관을 극복하도록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가 이전에 결코 알지 못했던 기쁨에 충만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족과 사회가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의 이상의 표준을 낮추었고 그의 욕망에 길을 비켜 주었습니다. 타는 담배 냄새가 그를 유혹했습니다. 몇 년 뒤 나는 그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가 알고 있던 옛날의 보다 행복했던 날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비통하게 통곡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행동에 대한 변명으로 이것을 탓하고 저것을 탓하고 했으며 나는 캐시어스의 다음과 같은 말을 되풀이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과오는, 사랑하는 부루투스여, 우리들 운명의 별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하잘것 없는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것이다. (줄리우스 시저, 1막2장, 140-41행)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훌륭한 목적으로 시작했으나 차츰 노력을 게을리 하거나 강한 신념으로 시작하여 나약함으로 끝나고 마는 사람들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관대한 본능을 부정하고, 재물에 매달리며 자기적이고 영감이 없는 생활 속에 타인과는 재능도 신앙도 나누려 하지 않는 이기적인 삶을 영위하려 합니다. 그들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주께서 오시는 날, 심판하시는 날, 분노하시는 날에 애통하며 울부짖기를 추수는 끝나고 여름이 지났으나 나는 구원 받지 못하였도다 하리라.”(교성 56 : 16)

그러나, 특별히 베드로와 같이, 주님과 그의 사업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다음에 말로나 혹은 침묵함으로써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에 관하여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헌신적이었던 한 젊은이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친구였으며 내 생애의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나의 선도자였습니다. 그의 살아가는 방식과 그의 열성적인 봉사는 주님과 교회의 일에 대한 그의 사랑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사업에서 자기들의 승진을 위한 수단으로 그를 이용한 동료들의 아첨이 그를 차츰 타락으로 끌어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신의 신앙과 태도쪽으로 그들을 이끌어 오기보다 반대쪽으로 그들의 유혹에 그는 차츰 굴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가 살아온 신앙을 지켜 나가겠다는 태도로는 결코 말하지 않았습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변화된 태도는 그가 가졌던 이전의 신앙을 저버렸음을 나타내는 충분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몇해가 지나고 나서 나는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소망을 잃은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눈을 내리깔며 그는 이전의 소중한 믿음의 닻으로부터 스스로를 끊어 버리고 목적없이 표류한 자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독백을 끝마치며 베드로와 같이 통곡했습니다.

최근에 나는 한 친구와 함께 우리가 둘 다 잘 알고 있는, 그의 직업에서는 아주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의 그의 활동은 어떤가?” 하고 나는 물어보았습니다. 이 말에 내 친구는 “마음 속으로는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두려워 하고 있어. 그는 만약 그가 자신이 교회 회원 자격을 인정하고 교회의 표준으로 살아간다면 그가 현재 속해 있는 사회적 집단에서 제외되지 않을까?로 무서워 하고 있다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 자신의 확실한 지식을 부인한 베드로와 같이 그날이 올 것이다. 아마 그렇게 나이들기 전일지 모르지만, 조용한 명상의 시간이 왔

오늘날
혹시 말로나 행동으로
믿음을
부인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여러분이
베드로의 예로부터
위로와 안정을 얻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함으로
여러분의 힘과 믿음을
다른 사람들의 힘과 믿음에
보태고
변화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을 때 이 사람은 그가 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 버렸음을 알게 될 것이다. (창세기 25 : 34 참조) 그리고 후회와 슬픔과 눈물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의 일생에서 주님을 부인한 것일 뿐아니라 그는 또한 매달릴 신앙 없이 자라온 그의 자녀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마가복음 8 : 38)

이제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로 되돌아가 볼까요. 그는 예수를 부인하고 나서 통곡하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고 그리고 스스로의 나약함을 뉘우치면서 그는 변모하여 강한 목소리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수제자인 그는 남은 생애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사망, 부활을 증거하는데 바쳤습니다. 그는 오순절에 돌아다니며 설교를 행하니 그때 군중들이 성신의 힘으로 마음이 감동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권의 권능으로 베드로는 요한과 더불어 절름발이를 고쳐 그들에게 박해를 가져 오게 되는 기적을 행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재판소에 소환되었을 때 그의 형제들을 위하여 두려움 없이 말하였습니다. 그가 받은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4, 10장 참조)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며 그물을 버려 두고 오라 하시니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는 최사슬과 감옥과

무서운 순교자의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 : 19 참조) 부활하신 주님께서 열한명의 사도에게 임무를 주시며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마태복음 28 : 19) 하신 마지막 가르침에서 주신 크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믿음 속에 베드로는 충실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야곱과 요한과 함께 성스러운 신권을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받고 지상에 다시 오신 것입니다. 말일에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조직되고 현재에 직분을 다하고 있는 것도 이 신성한 신권의 권능을 통한 것입니다. 이 훌륭한 일과 말씀 드리지 않은 더 많은 일들이 모두 (한때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래서 슬퍼했던) 베드로가 행한 것입니다. 그는 후에 자책을 딛고 일어서 승천하신 구세주의 사업을 후일에 전하고 이것의 회복을 위하여 일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날 혹시 말로나 행동으로 믿음을 부인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여러분이 베드로의 예로부터 위로와 안정을 얻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함으로 여러분의 힘과 믿음을 다른 사람들의 힘과 믿음에 보태고 변화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교회를 사랑하며 성장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 드리고 나의 말을 끝맺을까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기 시작했을 때 야망에 사로잡혀서 신앙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방식은 거의 그의 교회에 대한 신의를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다행히도, 아주 멀리

떨어져 나가기 전 그는 고요한 조그마한 음성으로 속삭이는 말쑥을 들었습니다. 그를 구하는 자책의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그는 달라졌고 지금 그는 위대한 시온의 스테이크 부장으로 봉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는 이 나라에서, 세계에서 손꼽히는 생산 회사의 고급 간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 가르침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와 있을지 모르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여러분에게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이해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말을 들어 줄 많은 사람을 발견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이 되돌아 올 길을 발견

하도록 도와 줄 많은 손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가슴을 녹여 줄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눈물이 있고 비통이 아니라 환희가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소망을 증진시키는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께 임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것을 행하려는 여러분의 결심을 강하게 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고 가슴속 깊이 여러분이 참되다고 믿는 곳으로 되돌아올 때 여러분이 느끼는 평화가 감미롭고 만족스러운 것이기를 빕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몇 가지의 강조 사항

가정 복음 교육에서 다음 사항을 토론의 주제로 할 수 있습니다.

- ① 훌륭한 목표를 유지함.
- ② 정의로운 노력으로 주님께 대한 사랑을 보임.
- ③ 왕국의 건설에 여러분의 믿음이 기여하도록 함.
- ④ 우리는 우리의 생을 보다 나은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기억함.

토론 지침

1.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로서 우리의 가능성을 살리는 중요성에 대해 여러분 개인적 느낌을 나눈다. 가족을 초대하여 그들의 생각을 나눈다.
2. 이 글 중 가족이 소리내어 읽고 토론할 수 있는 경전 구절이나 인용문이 있습니까?
3. 방문 전에 그 집의 가장과 이야기한 후에 이 토론을 갖는 것이 더 나올까요? “끝까지 참음”에 관하여 정원희 지도자나 감독으로부터 그 집의 가장에게 보낼 메시지가 있습니까?

그의 이름을 받들어

아디스 지 캡



몇 년 전 이른 봄날, 나는 어린 조카딸 셸리의 손을 잡고, 큰 나무들이 드리워져 있는 개울가를 따라 죽 놓여있는 바윗돌을 옮겨 밟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졸졸 흐르는 물소리는 마치 음악 소리처럼 들려, 우리가 바윗돌을 뛰어다니며, 균형을 잡기 위해 잠시 멈추기도 하면서 연출해 내는 춤에 반주곡이 되어 주었습니다.

얼마 안되어, 우리는 얼마 전에 큰 목화 나무를 잘라낸 넓은 풀밭으로 나왔습니다. 키 큰 수풀속을 걸어가면서, 나는

셸리의 손을 잡아 주어, 잘라낸 나무\사이로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도록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봄날에 연약한 파란 싹이 흙을 헤치고 나오는 것과, 산봉우리에 잔설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자연이 하나님의 창조물과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증거해 주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오후 시간을 내내 그렇게 보내다가 저녁에 불어오는 산들 바람으로 인하여 그 특별한 날이 끝나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좁고, 가파른 정원의 오솔길에 이르러서, 나는 셸리의 손을 놓고 그녀를 앞장 세웠습니다. 우리의 손은 얼마 동안 서로 꼭 달라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는 모험을 통해 한낮의 따스함속에서 어떤 유대가 이루어졌었던 것입니다.

집 가까이 이르러 환히 보이는 곳에 이르러, 우리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나는 허리를 굽혀 셸리를 들어 올려 나뭇 가지에 로빈새가 지은 작은 새 보금자리틀 보여 주었습니다.

이처럼 인상깊은 날이 끝나가, 어린 조카를 침대에 눕히기 전에 (언니가 나와 함께 거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무릎꿇고 기도드렸으며, 조카는 시냇물과 미끄운 바윗돌, 큰 나무, 로빈새 보금자리등에 대하여 감사했습니다. 전과 다를 바 없는 놀라운 축복에 감사의 정을 새롭게 느끼며, 나는 조카에게 몸을 굽혀 잘자라는 입맞춤을 해 주었습니다. 셸리는 두 발로 내 목을 휘감아, 자기 가까이로 끌어 당기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난 우리가 모두 한 가족이었으면 좋겠어”

“셸리야.” 나는 곧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란다”

“아니, 내 말은 친 가족이라면 좋겠다는 뜻이야. 나는 성이 라슨인데 이모는 캅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지 않지요. 이모가 내 언니가 되어서 우리 성이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비록 조카가 어리기는 하지만, 위대하고 영원한 진리의 실재를 어느 정도 일깨워줄 수 있다면 우리의 영원한 관계에 대한 확신으로 편안하게 느낄 수 있으리라 고 생각했습니다.

“셸리야, 우리는 정말 한 가족이란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므로 큰 가족에 속하는 것이란다. 우리는 형제 자매이며,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로, 우리의 만형이 되신단다.”

“그러면 예수님의 성은 무엇이지요?” 하고 그녀가 물었다.

“셸리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알고 있단다.” 티없이 순진한 조카는 내이름에 “그리스도”라는 성을 붙여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게 하려 했습니다.

“어머나, 그건 안되지! 우리 이름에 그렇게 성을 붙여서는 안되지요.”

“왜 안되지요?”하고 그녀가 물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우리와 구세주 사이의 성스러운 관계를 인식하게 되기를 바라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합당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이지.”

난 아직 그럴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걸.”

그러자, 그녀는 팔을 짚고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왜 그것이 나쁘다고 하세요? 한번 해 보면 우리가 모두 한 가족이 될 수 있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나 그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요.” 나는 그녀의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그런 말을 들은 것처럼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이틀 전 성찬식에 참석해서 나는 그와 똑같은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나는 전에 귀에 익도록 그런 말을 들었으면서도, 지금은 생소하게 들린 것입니다. 온 마음과 영혼 속깊이 그 말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저희들이 기쁘게 당신 아들의 이름을 받들어 항상 그를 생각하여 그가 주신 계명을 지키л 것을 ...” (교성 20:77)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한 것 즉 우리 스스로가 그 성스러운 이름을 받들어 항상 그를 생각하여 그가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을 증거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켈리는 내 설명을 듣고 만족하는 것 같았으나, 해를 거듭해 갈수록, 나는 우리 스스로 그의 이름을 받들기 위해 매주 성약을 새롭게 하는 성스런 의식을 더욱 깊이있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개 일요일에 갖는 것이지만, 평일날에는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또한 어린이나 청소년 또는 성인에게는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년중 어느 때나 우리가 생활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것은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쳐야 할까요? 우리는 이 성스런 의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일상적인 것이 되게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러한 것입니다.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사 세상의 죄를 짊어 지시고 세상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불의한 것에서 세상을 깨끗케 하셨도다.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셨도다.” (교성 76 : 41-42)

우리는 아무리해도 우리 자신의 죄를 속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갯세마네 동산에서 당한 그의 고난은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짐작해 볼 수도 없는 것으로, 우리 죄의 무게로 그는 모든 땀구멍에서 피를 쏟게 하는 고통과 아픔과 피로움을 당하셨습니다. (교성 19 : 18 참조) 우리가 영의 은사로 갯세마네에서의 일을 마음속에 되새겨볼 때, 우리 인간에 대한 구세주의 크신 사

랑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이겨내기 위해 싸워 나갈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과연 그러한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맡은 바 일을 다한다면, 이 속죄하심으로 우리는 죄를 사함받고, 합당하게 되고, 구원에 이르러 승영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스스로 죄를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신을 받아들이며, 모든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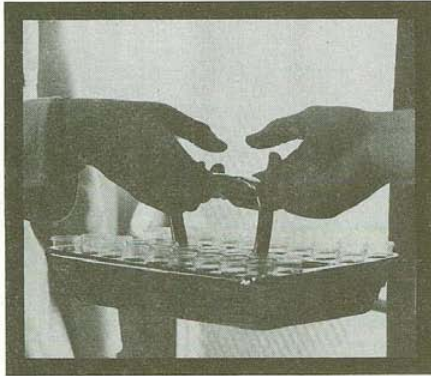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 (신앙개조 제3조)

우리는 침례받아 교회 회원이 될 때, 우리 스스로 그의 이름을 받아들이기 위해 구세주의 성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 성약을 지키고 일상 생활에서 그 중요한 사건과 관련된 일을 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켈리, 곧 우리 모두는 구세주의 속죄하심을 상기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거룩한 신권 의식인 성찬을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승영을 향해 매일 발전해 나가는 데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것은 비단 일요일만이 아니라, 월요일이나 화요일, 수요일 등 년중 어느 때나, 그리고 생의 정상에서 있을 때나 아니면 깊은 늪지대에 빠져 있을 때라도 그것은 귀하고 성스럽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 됩니다. 켈리나 여러분이나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마서 7장 11-13절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나가 고통과 고난을 겪으며 온갖 시험을 당하시리니, 그가 ...



우리는
 아무리 해도
 우리 자신의 죄를
 속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
 고난당하시고
 돌아 가셨습니다.

인간의 질병과 고통을 대신하리라...

“...육신을 입은 인간의 연약함을 취하시어 자비로 가득차게 하시리니, 육신을 입은 인간들의 연약함을 육신을 가지고 구해 내는 길을 아시려 함이었느니라.”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의 명철로 인하여 내 인생에서 성찬을 취하는 기회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찬을 든다는 것이 단순히 수동적인 경험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세상에서 일어나는 역사적인 일을 기억하듯이 주님의 고통과 죽음을 기억해서는 안됩니다. 성찬 의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필수적이고 영적인 경험을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할 것을 아버지께 증거함이라.’(니파이삼서 18:7)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작용되어야 하며 증거될 일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항상 그를 기억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 구속주를 기억하면서 성찬의 상징물을 취해야 하며 또한 우리는 이 상징물을 취함으로써 기꺼이 그의 이름을 받들고 그의 계명을 지키겠노라고 아버지께 증거해야 합니다. 현재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찬의 상징물이 실제로 예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 집행으로 인한 변형은 어떠한 형태의 것이든 성찬을 확실히 이해하는 마음으로 취하는 사람들의 영혼속에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그러한 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감화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주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회보고, 1946년 4월, 47페이지)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나 내가 참으로 합당치 못하다고 느낄 때, 그분의 이름을 받들음에 불안을 느낄 때, 우리의 불완전함을 깊이 인식하게 될 때, 육신이 약해지고 우리의 존재를 인식함으로써 영이 시달림을 받을 때, 우리는 퇴

보하여 물러서게 되고, 최소한 우리가 보다 합당하게 될 때까지 구세주와 거룩한 관계를 맺기를 잠시 옆으로 제쳐 두어야 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합당치 못한 바로 그 순간에도, 즉 우리가 변화되기 이전에도 우리는 속죄의 크신 은사를 다시금 받아들이라는 제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멀리 물러서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 오히려 주님께 나아가 시겠습니까? 저항감을 느끼기 보다는, 그의 뜻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합당하게 되기 위해 노력하는 중에, 우리의 영은 더욱 겸손하고 감사하게 되며, 그 은사를 받기 위해 더욱 훌륭하게 준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이며 우리가 영원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찬 성약의 목적에는 항상 효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은사는 우리가 스스로 준비하여 의도된 목적을 위해 사용할 때 더욱 값지게 됩니다. 나는 이제는 셸리에게, “그래, 내 이름에 구세주의 성을 붙이자.” 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받들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가장 큰 필요성을 느끼고, 거룩한 은사가 우리의 영육을 깨움 때, 우리는 그것이 뜻한 바대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의에 굶주린 채 성찬 제단에 나와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스스로를 평가하여, 진로를 바로 잡고, 필요하다면, 우리 생을 바로 잡아 나갈 결심을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장소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판단하여, 거룩하

변형은
어떤 형태의 것이든...
그리스도의 희생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취하는 사람들의
영혼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 신성한 속죄의 중대성을 한층 더 깊이 이해하며, 실제로 주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여 우리 삶의 모든 행위에 대한 인도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점차 그러한 영적인 수준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전세의 상태에서 의견의 일치로? 동반의 경지를 경험하게 되어 구원의 계획의 영향권 아래 있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영생을 가져다 주도록 힘쓰게 될 것입니다.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게 되면, 그로 인해 그날 하루가 달라지게 되고, 이 영이 우리가 하는 말과 매일 하는 일과, 학교에서나 고속도로에서, 시장터에 나타나게 되면, 서서히 나날이 변화되어, 우리의 행위가 보다 헌신적인 것이 되며, 우리의 관계가 더욱 부드럽게 되고, 항상 봉사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어 우리 스스로 선한 일을 하게 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늘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받들 뿐 아니라, 우리의 얼굴에서 그의 형상을 띄게 될 것입니다. (엘마서 5:14 참조)

이 실험은 옛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존시에도 시도되었습니다. 몇몇 사람

들이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게 되었으며 차츰, 그의 첫번 제자들은 좀더 사려 깊고 이해심이 깊게 되어 영적으로 강하고 힘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과정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구세주를 만난 그는, 그 때로부터, 그의 언행과 직업과 일상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조금 덜 극적일 수도 있는, 이런 만남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기적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마치 구세주께서 우리를 대하시듯 우리가 서로를 더욱 가까이 보기 시작할 때 생활이 바뀌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가르치듯이 우리도 서로를 가르치기를 원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께서 간증하시는 것에 대하여 서로 영적인 면에서 간증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만나면, 어떤 사람이 말했듯이, “우리는 단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영육을 교환하게 됩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환을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들 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복지를 함께 나눌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 함께 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이 보는 대로가 아니라, 주께서 보시듯이 사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게 될 것입니다.

롬니 부대관장은 교회의 부름에서 해임되는 자매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여러분을 도와 매일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 함께 하는 생

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그 뜻에 따라 생활하기를 알도록 노력하며 또 그대로 살도록 노력하는 일은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데서 생의 위안을 얻게 됩니다. 영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영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기 위한 분별력을 갖도록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는 그 충고의 말씀을 따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옆 집에 사는, 이웃에 사는 또는 길 건너에 살고 있는 형제 자매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그 사람에게서 구세주께서 보시고자 하는 점을 보고자 노력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은 형제 자매에게서 그들의 짐을 덜어 주고 그들의 나날을 밝혀 주고, 이해를 넓혀 주고, 희망을 안겨 주기 위해 어떤 것을 나누고, 구세주께서 하시리라고 생각하는 대로 해보려 노력하시겠습니까? 그와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이번 주에도 성찬을 취하여 성약을 새롭게 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더욱 강건해지고, 소망을 키우게 되며,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의 행위가 증가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개인적인 증거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진리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고, 그것을 구세주와 함께 하여, 분명히 형제 자매이기는 하지만 낯선 사람인 옆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와 같이 하려 한다면, 여러분 주위에서 즐거움과 흐뭇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음성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되고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깊은 느낌이 마음

속에서 부풀어 오르게 되어,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섬기는 듯한 영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그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가질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영적인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다른 사람에게도 미치게 되어 우리 스스로 합당하게 되어 주님의 이름을 받들기에 합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당연한 의무로 생각되는 일상적인 과제이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받들기에 합당하게 됨을 나타내는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버스를 타거나, 식품점에서나 교실에서 특히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가정에서, 우리는 주께서 하시리라고 생각하는 대로 서로를 보도록 노력하고, 서로의 신성한 잠재 능력을 알아보도록 노력하고, 영의 속삭임으로 확실히 알게 된 영원한 진리를 함께 나눌 기회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구세주의 생애가 끝날 무렵, 주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며, 주님은 우리가 그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 (요한복음 13 : 34-35)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받들 때 일상 생활의 모든 행위는 주님과 맺는 성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이 생각대로 훌륭하게 되지 않을 때 주님을 따르기 위해 거듭 노력하면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영화로운 변형을 느낄 수 있는 안식일의 성찬대로 나올 때 우리는 전보다 더욱

열심히 절실하게 깊은 감사의 뜻으로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날과 새로운 주일과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여, 우리는 좀더 깊이 있게 느끼고, 더욱 진심으로 보살피며, 더욱 동정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며, 더욱 목적 의식을 가지고 가르치며, 항상 그를 기억하며,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는 다른 기회를 갖게 됩니다.

여러 해 전 저녁에 내가 다시 한번 셸리의 손을 꼭 쥐어 주고는 발걸음 소리를 죽이며 그녀의 방에서 나오면서 그날 오후 내내 조카의 손을 잡고 시냇가와 바윗돌과 나무 사이를 뛰어 넘게 하고 조카를 들어 올려 로빈새의 보금자리를 보여 주어 생의 기적을 엿보게 해 준, 이 아이를 통해 나는 비로소 위대하고 영원한 진리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된 동기를 부여받았음을 깨닫고는 벅찬 감사와 경건한 느낌에 젖게 됩니다. 베냐민 왕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제 너희가 맺은 이 언약으로 하여 그리스도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리니, 곧 그의 아들과 딸이라 이르니라, 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에 영으로 낳으셨읍니라. 너희는 그의 이름을 믿는 신앙으로 인하여 너희 마음이 변화되었다 말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태어나 그의 아들과 딸이 되었으며.” (모사이야서 3 : 7)

우리는 모두 같은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서는 안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한번 해 보면 되지 않는다는 셸리의 질문을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해도, 주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 *

질 의 응 답

다음 대답은 교회의 공식적인 정책이나 교리가 아니고 지침으로 소개되는 것이다.

수잔 즈몰렉

다섯 자녀의 어머니이며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교육 담당 보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간증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었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간증이란 무엇이
며, 왜 그것을 나누어야 하고, 언
제 나누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것은 현
명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교회 회원들에게 있어서, 간증이란 어
떤 개인이 참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것, 특
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사명에 대
해서와, 요셉 스미스의 예언자로서의 부
름, 현대 예언자의 거룩한 부름에 대한
증거를 특별히 나타내는 매우 개인적인
표현입니다. 교회 지침서에는 이렇게 설
명되어 있습니다. “간단하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증과 신앙을 증진시키는
경험담을 전하도록 권고한다. 설교, 여
행담, 긴 설명을 요하는 경험, 일상적으

로 반복하는 말 등은 피하여야 한다.”
(교회 지침서, 제21권, 20페이지)

어린 자녀들은 간증 모임에서 다만 어
른들의 여러 가지 표현에 귀를 기울인다
고 해서 이러한 참된 원리를 배울 수 없
습니다. 부모는 가정의 밤 시간을 활용
하거나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서 자녀들
에게 간증에 관해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
다. 처음으로 시작하는 쉬운 방법은 취
침 시간 같은 때에, 간증이 무엇이나고
묻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해마다 자녀
들이 간증에 합당하게 포함된 내용이 무
엇인가를 알 때까지 그들의 이해를 넓히
도록 도와 줄 책임이 있습니다.

여섯살 밖에 되지 않은 어린이라도 간
단한 개념을 배울 수가 있는데 이를테면
그가 매주 금식 주일마다 간증을 해야만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린
이는 “나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물론 기분 좋은 생각이기는 하지
만, 복음의 간증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뜻없는
말을 되풀이하여 습관적으로 표현하기보
다는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배우게 됩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가르
쳐 준다면, 청소년이 되어서는 캠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과 신앙을 키우는 경험
사이의 차이점은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
다.

어린 아이들은 또한 왜 그들의 간증을
나누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신이 그들에게 참된 것으로 알
고 있는 것을 말하도록 속삭여 주기 때문
에 간증을 하게 된다는 것을 어린 나이에

알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금식과 간증 모임의 순서는 성신의 인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부모나 교사들은 그들의 가족이나 반원들 전체에게 모임에서 간증을 하도록 촉구하는 일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친구들에게서 압력을 받거나, 할머니나 이성 친구 또는 좋아하는 선생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간증을 하도록 가르쳐서는 안됩니다.

어린이는 언제 간증을 해야 할까요? 많은 어린이들이 금식 모임을 간증을 하는 유일한 기회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그 본보기로 여러 면에서 다른 개인적인 기회를 그들에게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가족간에 대화를 하는 중에 특정한 복음 원리에 대한 간증을 자주 한다면, 자녀들 역시 복음에 대한 이야기에서 그들의 느낌을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아버지가 저녁 식사 시간에 자신이 직장 동료에게 살아있는 예언자에 관해서 간증한 것에 관하여 이야기한다면, 그 자녀들도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비회원 친구들에게 나누어 줄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부모는 또한 가정의 밤 시간에 정기적으로 간증할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모든 복음의 가르침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모는 적극적으로 올바른 원리를 가르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녀의 이해심을 넓혀 주면서, 그가 하는 일이 옳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정 생활 속에서 간증을 하는 방법을 그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어린이는 개인적인 대화와 공식적인 교회 모임에서 언제, 어떻게 간증하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로저 애어 헨드릭스

남 캘리포니아,
교회 교육 기구,
교사 보조 상담

우리는 계시로
그리스도가
4월 6일에 태어나셨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는
전통적인 기독교 성탄절을
축하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오랜 세월을 지내오는 동안 많은 이야기를 들어 왔고 여러 가지로 추측되어 왔습니다.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전 1년 4월 6일에 태어났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가 구세주께서 봄에 태어난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된 근거는 교리와 성약 20편 1절에서 “우리 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지 일천 팔백 삼십년이” 되는 해에 교회가 조직되었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4월 6일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조직된 날이었습니다.

한편, 하이람 엠 스미스 장로는 교리와 성약 주해서 제1편에 이렇게 썼습니다. “1830년에 교회가 조직되었다는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세상에서 인정되는 달력을 변경할 신성한 권능을 인정받은 것으로 여기기가 힘듭니다.” 이 계시(교성 20:1)가 뜻하는 바는 전적으로 교회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830년에 조직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주님에서 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는 아직 구세주의 확실한 탄생 날짜를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브르스 알 맥콩기 장로는 육신의 메시야라는 글에서, 그 문제에 너무 깊이 개입되지 않기를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팎에서 알려져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현재와 같은 지식의 상태에서 주 예수의 탄생일이 실제로 언제 있었는지 딱 잘라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전통적인 기독교인의 성탄절을 경축하고 있을까요?

사실상, 역사가인 다니엘 보스틴에 의하면, 1800년대 초의 성탄절은, 비공식적인 민속 축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대수롭지 않은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요셉 스미스와 많은 뉴 잉글랜드 지방의 성도들이 그 당시에 익숙해 있었던 성탄절도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성탄절이 종교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일반 사람들이 즐기는 휴일이 되었으므로, 초기 성도들은 그날을 성스러운 날로 만들어 내려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19세기 중엽에 들어서 성탄절이 좀더 큰 종교적인 의의를 갖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예언자는 1843년 12월 25일 새벽 1시쯤 영국에서 이민은 몇몇 회원들이 부르는 캐롤 소리에 잠이 깨었습니다. 분명히, 유럽인들은 일반적

으로 성탄절을 종교적 휴일로 바꾸었으며, 이 이주민들은 그 전통을 나부에게까지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그 때의 일을 좋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기쁜 전율이 내 온 영육을 타고 흘렀습니다. 나는 그들이 방문해 준 데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오늘 날에는, 성탄절이 전세계적으로 구세주의 탄신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축하 행사에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교리에서, 브르스 알 맥콩기 장로는 이렇게 썼습니다. “성도들은 성탄절 축하 행사의 유익한 부분에 참여한다.**

성탄절은 그들에게 구세주가 불멸의 아버지의 아들로서 탄생한 참된 교리를 새로이 찾는 이상적인 기회가 되며, 그 사실로 그는 무한하고 영원한 속죄를 완전케 한다.

그러한 것을 이해하게 되면, 참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구세주의 탄생을 경축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이거나 종교적인 행사가 실제로 그 일이 있었던 날이 아닌 다른 날에 경축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유타 주민들은 7월 24일을 개척자들이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들어온 날로 경축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성도들이 처음으로 도착한 날은 7월 21일이었으며, 7월 24일은 브리감 영 예언자가 도착한 날이었습니다.

계시로 우리가 예수의 탄생일을 특별한 날짜로 경축하도록 가르침 받는다면 우리는 기쁘게 그에 따라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전통적인 기독교 성탄절을 경축하는 것이 가장 뜻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

모린 데릭 킬러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 놓은 경전은 지난 수년 동안 나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어 왔다. 왜냐하면 진리가 아름다운 말로 표현되어 있으며 그러한 진리의 말씀은 생각하고 느끼는 많은 면에서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생애에 있어 중요한 영적인 사건들이 경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경전에 마음이 끌리는 것이다.

그런 경험 중의 하나가 바쁜 축제 기간 중인 어느 늦은 밤에 일어났다. 나는 다음 일요일 성찬식 말씀을 더 잘 준비하기 위해서 급하게 경전을 찾고 있었다. 나의 마음은 아직 끝나지 않은 축제를 보러 오고 있는 친척들과 어지럽혀진 집안 상태에 관한 걱정으로 팍 차 있었다. 내가 이토록 분주한 때에 감독님이 말씀을 부탁했을 때 왜 하겠다고 대답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오래 아무런 결과도 없이 경전을 뒤적거린 후에 마침내 니파이일서 11장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거기엔 구세주의 탄생과 지상에서의 성역에 관한 니파이의 특별한 시현

을 자세하게 나와 있었다. 웬일인지 이 시현을 전에 읽었을 때에는 나에게 강한 인상을 주지 못했었지만 그 날은 말의 의미 하나 하나가 나에게 강한 감명을 주었다. 니파이는 기쁨에 넘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천사가 내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양, 곧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을 보라 너의 부친이 본 나무의 의미를 네가 알겠느냐?”

“이에 내가 저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알겠나이다. 그 나무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두루 적셔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에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저희가 얻고자 하는 것이오나이다 하였더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그러하도다,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니파이일서 11:21-23)

그 말씀은 새롭게 발견된 보물과 같이 느껴졌다. 처음 읽었을 때 리하이가 본 하얀 열매가 달린 나무의 의미를 완전하게 분명히 알 수가 있었다. 그토록 뛰어난게 감미로운 맛



이 나는 열매는 매혹적으로 달콤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나는 말씀할 주제를 찾았으며 지명받은 날에 말씀할 수 있는 힘도 얻었다. 어려움이 많아지고 현금 출납부가 바닥이 나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내 가슴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스해지고 강화되었다.

하지만 그 흥분된 늦은 밤의 일로 인해 가장 오래 계속되는 영향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지난 기억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지난 20대에 독신녀로서 나는 내가 살아왔던 길을 반성하며 어떤 중요한 변화를 생각해 보고 있었다. 반갑지 않은 생일은 교회의 많은 독신들과 같이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나이가 들었다는 생각을 갖게 했다. 또한 나는 어떤 중요한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느꼈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인도가 필요하다고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내 생애 처음으로 신권 지도자에게 축복해 달라고 부탁드렸다. 이 훌륭한 지도자님은 금식을 하며 자신은 준비했고 나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제안했다. 우리는 어떤 맑은 일요일 아침에 일찍 만났다. 그가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동안 나는 주의를 집중해서 해답과 해결책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거기서 실망을 했다. 왜냐하면 주님은 현명하게 내가 내 자신의 길을 찾도록 놓아 두셨기 때문이다. 그는 내가 참으로 필요했던 것을 축복해 주는 대신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개인적인 증인이 되게 하셨다. 축복의 말씀은 나의 생활과 문제들에 관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담고 있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향력의 예를 마음속에 들려주는 동안 영은 모든 것

이 참됨을 증명해 주었다. 나의 가슴은 어떤 만질 수 없는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사랑과 감사함으로 흘러 넘쳤다. 나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했으며 나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 뿐만 아니라 대신에 그에 대한 나 자신의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었다.

나는 자주 그 경험이 미친 영향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어떻게 나의 생활에 그와 같은 끝없는 힘을 줄 수 있었는가? 나에게 있어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가장 비밀스러운 슬픔과 두려움은 물론 또한 한밤중의 고통스러운 생각까지도 완전하게 알고 계시다는 것이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힘을 주며 목표가 달성되어야 된다고 느꼈을 때 목표가 완전히 달성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보다 더 낫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그 경험을 한 지 얼마 후에 감독님은 나에게 성찬식에서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기쁘게 응답했으며 모임 전 날까지 논리적이고 지적으로 말씀을 잘 준비했으며 올바른 경전의 도움과 이 지적인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보장을 했었다.

토요일 저녁에 가장 작은 일까지도 영의 인도를 받는 것같이 감독님이 전화를 걸어 왔다.

“내일 말씀을 하실 때 준비한 말씀을 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이 참으로 훌륭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했는데요.”

감독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자매님이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을 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주의깊게 준비했던 말씀을 포기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지만 영의 지시하심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동안 마침내 분명한 것이 나에게 떠올랐다. 즉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새로 얻은 간증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와 같은 개인적이고 성스러운 경험을 나누는 것은 쉽지가 않았다.

비록 내가 경험이 많은 선생이긴 했지만 그 일요일에 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설교단으로 다가갔다. 나는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다. 내가 느낀 따스함과 믿음을 얘기하면서 나는 안전과 편안함에 관한 경전의 말씀을 인용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번이냐.” (누가복음 13 : 34)

나에게 있어서는 그 의미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슬기롭고 다정한 특성을 나타낸 그 어느 것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진다.

나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말하고 있는 다른 마음에 드는 경전 구절을 골랐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곁에 가까이 가리라. 나를 부지런히 찾으라. 그리하면 찾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교리와 성약 88 : 63)

이야기하는 데 어려웠던 만큼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준 영향은 지금까지 내가 전해준 많은 말씀보다 훨씬 컸다. 그 경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

선한 일을 하게 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전 구절들이 그토록 아름답거나 의미있게 느껴진 적이 없었으며 설교단에서 진리를 전하고 있었던 것 같은 강한 확신을 가진 적이 없었다.

단지 최근에 나는 물론경에서 다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강한 시적인 의미를 발견하곤 기뻐다.

“오 너희 마음이 순결한 자는 머리를 들고 하나님의 기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 너희의 마음이 굳건하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리라.” (야곱서 3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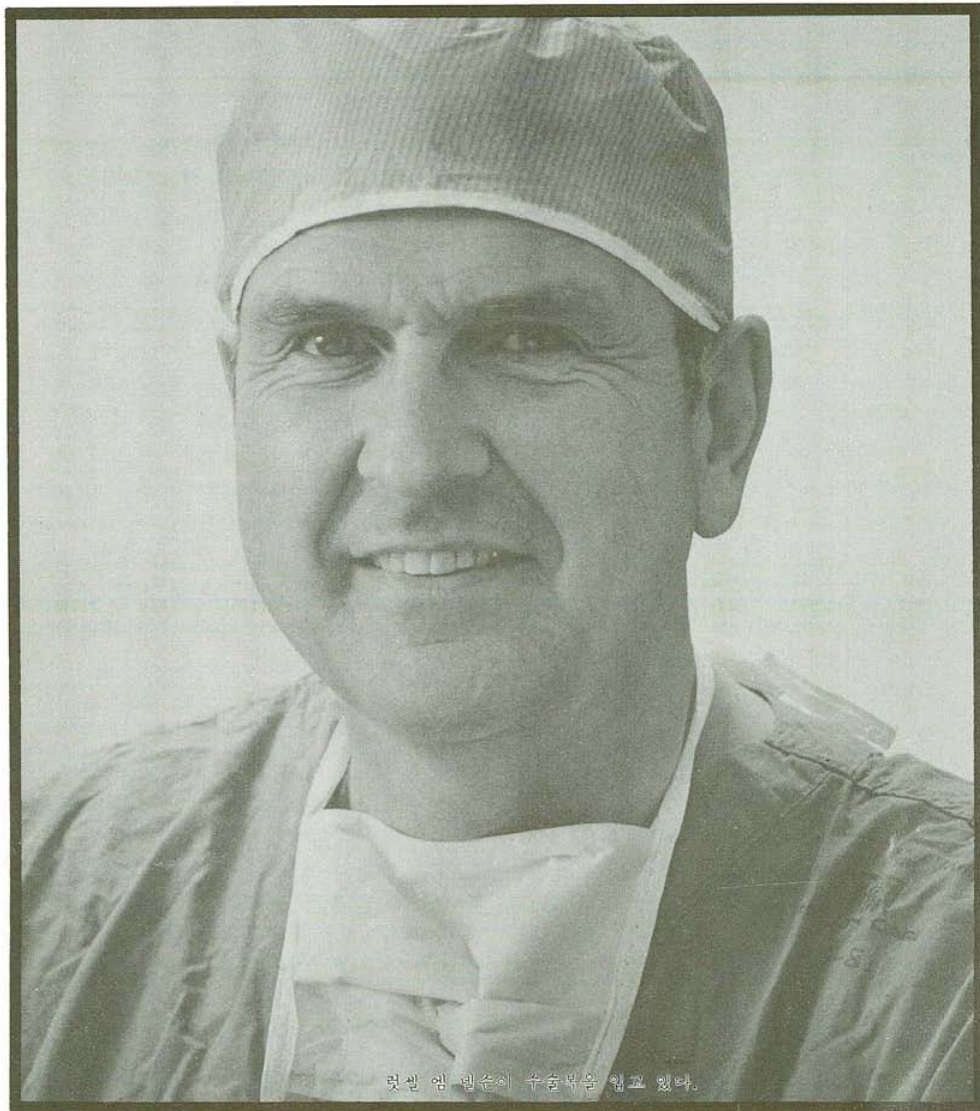
“받으라” 라는 단어의 풍요로움이 즉시 나를 감동시켰다. 이 단 한 마디의 말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특별한 관대함을 나타냈다.

야곱서를 읽음으로써 나는 오늘 20년 전에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한 경험을 하고 있다. 지난 시간 동안 나는 경험과 개인적인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다. 나는 그분의 사랑이 충분하며 결코 양적으로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그러한 사랑에 굶주리고 구하려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그것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또한 우리의 마음이 복음에 “굳건”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 *

럿셀 엠 넬슨

순종 가운데서의 연구

레인 존슨



럿셀 엠 넬슨이 수술복을 입고 있다.

눈부신 조명과 번쩍이는 기구의 정글에 둘러싸여 있는 수술대 위에는 60세의 노인이 누워 있었는데 특별한 녹색 천이 그의 몸을 덮고 있었고 가슴 한복판과 왼쪽 다리 위에 각각 직사각형으로 된 구멍이 뚫려 있었다.

렛셀 엠 벨슨 박사는 상급 외과 전문의 수련생과 간호원과 마취사와 흉곽 기계 전문가와 컴퓨터 전문가와 수술실 책임자를 포함한 두 명의 간호원 등 7명의 수술팀과 함께 그 방 안에 있었다. 나는 읊저버로서 그들로부터 약간 떨어져 위생복을 입고 그것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들이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신참자에게는 놀라운 정도로 민첩하게 맡은 바 일을 시작했다. 상급 전문의 수련생은 능란한 솜씨로 30센티미터 길이의 흉골 절개를 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상처로부터 흘러나오는 수많은 모세 혈관을 차단시키기 위해 마취 기구를 사용했다.

동시에 벨슨 박사는 제거할 혈관을 찾기 위해 왼쪽 다리를 절개하고 있었다. 이것은 4중 관상 동맥 측관 수술, 바꾸어 말하면 환자의 심장 근육으로 흘러 들어가는 네 개의 동맥 측관 차단 수술인 것이었다. 다리에서 절제한 혈관은 측관 혈관 이식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 가위 소리가 나고 더욱 마비되어 간다. 나는 예정에는 없었지만 신선한 공기를 마실 겸, 이러한 책임을 계속하기 위한 결심을 재평가하기 위해 복도로 나왔다.

전기톱의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수술실에 다시 들어갔을 때 내 앞에 전개되는 광경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수술대 머리 앞에서 환자의 흉골이 세로로 잘리는 것을 보았으며 교묘한 견인기(절개한 부분을 넓히는 데 쓰이는 외과 수술용 기구)가 틈사이에 놓여 있

는 것을 보았다. 짧은 지레 위에 있는 몇 개의 크랭크 견인기를 늘어뜨렸다. 그리고 바로 거기 곧 환자의 벌려진 늑골 사이에 그의 심장이 튀고 있었다. 옥내 통화 장치를 통해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왔다. 외과의의 눈에는 놀라움도, 극적인 느낌도 없었으며 단지 신중한 집중만이 엿보였다. 내 자신이 나약하다는 느낌은 수술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사라졌다.

한 시간 이상의 힘든 수술 끝에 네 개의 이식하기 위해 잘린 혈관이 대동맥에 연결되었다.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자 모두가 심히 놀랐다. 벨슨 박사는 즉시 진단을 하고나서 이 과정에서 중대한 순간에 수많은 관 가운데 방치해 둔 하나의 겸자(외과 수술 용구)를 지적했다. 이것을 속히 제거해야 한다. 그것은 사소한 실수이나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는 감사의 책임을 지고 있는 팀에게 말했다. 그들은 감사의 묵례를 했다. 그때 벨슨 박사는 약간 뒤틀린 음성으로 “때때로 나는 여러분을 다른 때보다 더 사랑합니다...”

사방에서 눈웃음이 번져 나왔다. 그가 이 수술을 지휘하고 있음은 아주 분명한 일이었다는 필요 이상의 긴장을 풀도록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정신 집중이 계속 요구되고 있었다.

벨슨 박사는 후에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극도의 자제를 요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생명이 전적으로 그 수술팀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조용해야 하고 긴장을 풀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합니

다.”

이제 4시간이 지났고, 모든 것이 마무리되려고 하고 있다. 흉곽 기계는 제거되었고 심장은 전극으로 말미암아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 이제 심장 근육을 위해 새로운 혈액 공급으로 상당히 부풀어진 이식된 부분을 피가 새는지 조사하고 있다. 심장은 잘 작동하고 있으며 환자도 안전하다. 이제 걱정하고 있는 환자의 가족에게로 생각이 미쳤다. 그래서 한 간호원이 전화를 걸었다. “이제 수술이 끝났습니다. 네 곳을 이식했습니다. 벨슨 박사님은 약 45분 후에 내려가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흉곽 절개 수술은 미국에서 매년 100,000건 이상 실시된다. 벨슨 박사는 장로가 그의 아내와 자녀와 손자와 함께 있다.

사는 이 분야에서 30년 이상 종사하는 동안 그는 이 수술과 관련된 기술의 발달을 보아 왔다. 그리고 수술의 전문 기술은 100명의 환자 중 실패자는 단지 2명 미만 선까지 향상되었다.

그 자신의 의학 공부는 그가 유타 대학 2학년에 재학하고 있었던 1942년부터 시작된다. 그 이후 그는 놀라우리만치 단순한 의학에 관한 요약된 견해를 발전시켜 왔다. “의사는 환자의 문제를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한 가지 중대한 질문에는 한 가지 대답이 필요합니다. 환자의 상태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향상될 것인가? 아니면 악화될 것인가? 의사의 역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치료될 수 없는 것을 치료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러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의사는 그 자신에게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히 신뢰할 수 있는 인간의 몸 속의 치유 능력에 의존할 수 있다. 그는 교리와 성약에서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무릇 창세 이전부터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하늘의 율법이 있어 모든 축복은 이에 근거를 두나니,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율법을 순종하였으므로 얻게 되는 것이니라.”(교성 130 : 20-21)

그는 이렇게 계속했다. “바꾸어 말하면, 축복이 주어지게 될 때마다 그것은 어떤 율법을 순종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의 시간이나 어떤 시간이 아닌 예외없이 반드시 그와 같이 될 것임을 뜻합니다. 육체를 다스리는 율법을 기꺼이 연구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러한 압박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이러한 환자를 거의 죽음으로 보냈다가 되살리는 일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그의 아내가 될 아가씨 단첼 화이트를 만나게 된 것은 그가 유타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있을 때였다.

그는 그녀로부터 받은 느낌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나는 그녀가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여자였다고 생각하고 내가 결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단첼도 그렇게 느꼈다. 그녀가 유타주 페리에 있는 그녀의 집에 갔을 때 부모에게 결혼하고자 하는 남자를 만났다고 선언했다. 3년 후 그들은 솔트레이크 신전에서 결혼했다.

1944년 의과 대학에 들어갔을 때 러셀

환자의 상태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향상될 것인가?
아니면 악화될 것인가?
의사의 역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치료될 수 없는 것을
치료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은 3년 동안에 4년 과정을 마쳤다. 그후 미네소타 대학 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시작했고 거기서 외과 의술을 익히면서 박사 학위 과정을 공부했다. 그는 또한 심장이 외과 수술을 받을 동안 환자의 심장 파쇄의 기능을 알아 줄 기계를 개발하도록 5개년 연구 보조금을 받는 팀의 일원이 되었다. 그 일은 엄청난 것이었으며 거의 3년간의 피나는 노력 끝에 이것을 사용하기에 이른 것이다. 1951년 최초로 한 인간에 대한 심장 수술에 사용됐다.

오랜 기간 동안의 최신의 외과 훈련을 쌓은 뒤 그와 단첼은 네 명의 딸과 곧 낳게 될 다섯번째의 아기와 함께 온 가족이 솔트레이크시티로 돌아왔다. 그는 유타 대학교 의과 대학에서 외과 조교수로 연구와 가르침과 수술을 계속했다.

그의 말을 빌리면 그 초기의 심장 수술은 “해도도 없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수술로써 생명을 구할 수 없을 경우, 기쁨과 절망이 교차되기도 했다.

25년이 지난 후에도 그는 여전히 환자의 고통에 냉담해지지 않았다. “오늘날 의사들은 이와 같은 수술에 높은 성공률

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오직 위안을 주는 것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희망을 짓밟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의사의 임무는 때로는 치료하는 것이며 자주 고통을 덜어 주며 언제나 위안을 주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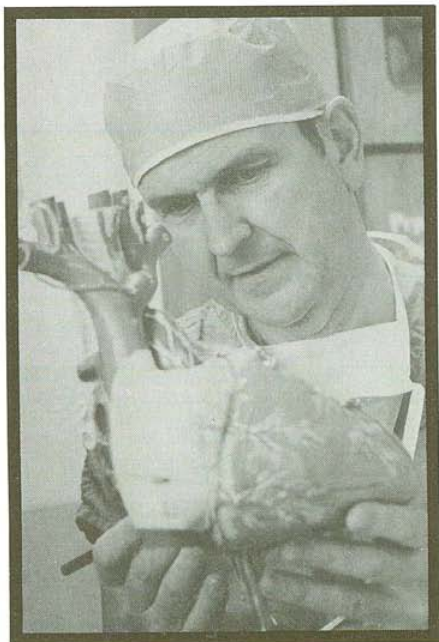
1959년에 그는 유타 대학을 나와 개업을 시작했다. 그때 그는 35세였고 여섯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으며 의과 대학을 나와 수련을 받는 이 기간 동안에 자신을 올바르게 준비하기 위해 더 많은 부채를 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테이크 부장이라는 중책에 부름받게 되었다. 그가 이 직책에 성별되기 전에 벨슨 형제는 의과 의로서 그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과제의 하나는 대동맥 판막 교체의 어려움이었다고 말했다. 그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스펜서 더블류 김볼 장로는 그를 축복하는 자리에서 그가 의과 의사로서 그가 행하는 의료의 질이 향상되어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없어 스테이크 부장으로서 봉사할 시간을 갖게 되리라고 약속하셨다. 김볼 장로 자신이 후에 이러한 축복으로부터 유익을 얻게 되었다. 그것은 1972년에 벨슨 박사가 김볼 회장의 대동맥 판막 교체 수술을 행하면서 흉곽 절개 수술을 했기 때문이다.

1965년 벨슨 박사에게 또다른 주요 대학에서 흉곽 및 심장 혈관 외과 과장과 교수가 되는 특별한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다. 그 제의 가운데는 후한 봉급과 자녀가 자랐을 때 대학 교육을 마칠 때까지 학비를 지급하겠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주님께서는
교회에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엄청난
많은 일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충실한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준비되고
자격있는
말일성도라면
자신이 짊어질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흉곽 외과의 벨슨이
인간 심장의 특대형의 모형을 연구하고 있다.



넬슨 가족은 이러한 제의에 크게 매력을 느껴 그것을 받아들일려고 했다. 그러나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스테이크 부장으로서의 자신의 봉사에 영향을 주는 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는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의 조언을 구하기로 했다.

상세한 사정을 듣고 난 맥케이 대관장은 눈을 감으시고 의자에 기대어 그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넬슨 형제님,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지 않는군요. 나는 형제님이 시카코로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넬슨 박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대답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호의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솔트레이크 시에 남게 된 것입니다.

1971년 6월에 넬슨 박사는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님으로부터 그분의 사무실로와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는 즉시 그분의 사무실로 갔으며 거기에 해롤드 비리 부대관장님도 함께 계신 것을 보았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은 그 당시 건강이 좋지 못했음) 리 부대관장님과 태너 부대관장님은 외과 의사로서 봉사하는데 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교회의 주일학교 본부 회장으로 봉사할 수 있겠는지를 물으셨다.

그가 갑자기 받은 충격으로부터 정신을 차렸을 때 넬슨 박사는 그가 의료 행위를 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부름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일겠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들은 외과 의사로서 자신의 일을 계속할 수 있다면 그 부름을 받아들이라고 권고했다. 이와 같이 그는 본부 주일학교 회장으로서 8년 이상 봉사했다.

다음해 4월 12일에 킴볼 회장을 위한

홍곽 절개 수술이 행해졌다. 그 수술은 완벽했다. 해롤드 비리 부대관장과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으로부터 받은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는 수많은 복잡한 과정을 조금도 과오가 없이 끝마쳤다. 넬슨 박사에게 있었던 보다 특별한 일은 수술을 마쳤을 때 그에게 임한 어떤 압도적인 느낌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해 내가 장차 교회의 대관장이 되실 분의 수술을 행했다고 말했습니다.”

1979년 10월에 본부 주일학교 회장직에서 해임된 이후 넬슨 형제는 십이사도로 정원회의 지역 대표로 봉사했다. 그는 외과 수술 일정 때문에 심히 바빴다. 종종 하루에 두 차례나 홍곽 절개 수술을 행해야 했다. 그는 협회나 공동 사회의 일에 활동적으로 참여했으며 집에는 여전히 자녀들이 있었다.

그와 같이 많은 시간이 요구되며 하루에 24시간밖에 갖지 않는 그가, 어떻게 훌륭한 가족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겠는가?

넬슨 가족과 그들의 자녀와의 관계는 영원한 유대로 인도되는 특별하고도 훌륭한 관계를 갖게 하였다. 넬슨 형제는 수년 동안 단첼에게서 관찰한 자녀들에 대한 천부적인 친근성에 놀랐다.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자신의 경험에 관해서 넬슨 형제는 우리들 가운데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최대의 만족은 우리들이 주님께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바를 행하고 있음을 아는 것이라고 했다. 그것과 관련해서 그는 **그랜드 캐년**에서 멧목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멧목이 급류에 휘말리는 바람에 자신과 그의 딸 그로리아가 물에 빠졌을 때 재미나는 교훈을 배우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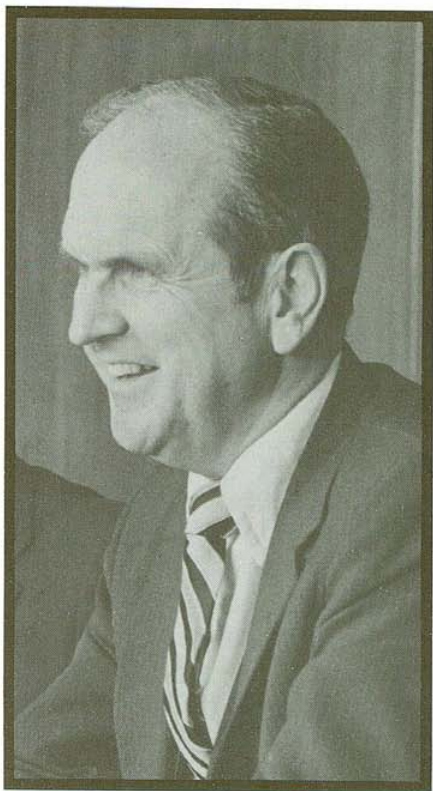
그는 그때 일을 이렇게 회고했다. “그것은 몸서리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쇠막대를 굳게 잡으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급류를 헤쳐 나가면서 나는 내 딸의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 내 딸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후에 더 어려운 급류를 만났을 때, 나는 밧줄을 단단히 잡고 나서 내 딸에게 나를 잡게 했습니다. 이와 동일한 원리가 복음 생활에도 적용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고 순종하며 우리의 가족이 그분께 의존한다면 모든 가족은 안전할 것입니다.”

넬슨 형제가 57세였을 때, 그는 의로계와 공중 단체에서 훌륭한 봉사를 했다는 수많은 상을 받았다. 그는 미국 흉곽외과 위원회 회장으로 봉사하는 영예를 얻었으며 유타 흉곽 협회 및 유타 의학 협회의 회장을 역임했다. 그러나 모든 다른 관심을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의 사업을 진진시킴에 있어 주님께 순종하겠다는 그의 결의인 것이다.

그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교회에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엄청난 많은 일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충실한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준비되고 자격있는 말일성도라면 자신이 짊어질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럿셀 엠 넬슨은 교회 대관장에게 순종했으며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을 들을 때 실망했다. “김볼 대관장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곧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나니, ‘내 자신의 음성이거나 내 종의 음성이거나 다 같으니라.’라고 넬슨 박사는 우



십이사도 정원회 지역 대표로 부름받은 넬슨 장로가 스테이크 부장을 만나고 있다.

리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다. “내 경험으로는 일단 여러분이 예언자의 말씀에 의문 부호를 찍기 전에 감탄 부호를 찍고 그것을 실천한다면 축복이 쏟아질 것입니다.

“나는 결코 자신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예언자께서 언제 예언자로서 말씀하시며 언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의 관심은 오직 ‘어떻게 내가 더욱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

균형을 유지함

복음에 따라 살려는 도가 지나친 노력을 깨닫고 이를 배격함

오 던 오스틀러

1981년 4월말 세계 최초의 왕복 우주선이 궤도내에 발사되어 이틀 동안 지구 둘레를 선회하며 궤도 상에서 얼마만큼 성능을 잘 발휘하나 테스트 하기 위한 몇 개의 시험 중 첫번째 것을 수행했습니다.

우리는 컬럼비아호의 귀환과 캘리포니아 에드워드 공군 기지에의 착륙을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습니다. 이의 착륙시의 정확성은 놀랄 만했습니다. 시속 29,000킬로미터로 운행하면서 왕복 우주선은 대기권을 통과하여 하강하였고 알맞게 속도를 늦추어 불과 몇 백 미터 폭과 몇 킬로미터 길이밖에 안되는 활주로 위에 완벽하게 착륙하였습니다.

어떤 의미로, 영원하신 부모님의 영의 자녀로서의 존재로부터 마침내는 하늘

나라로 되돌아가는 우리들의 여정은 컬럼비아호의 항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행을 하는 동안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지식과 그런 종류의 경험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가능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방법을 행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나라에 언제 어떻게 착륙할 것인가를 결정 지워 주게 될 것입니다.

슬프게도 우리의 영원한 나라에의 귀환에서 우리들 중 많은 사람이 목적물을 놓치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별의 왕국에,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에 착륙할 것입니다. 이러한 착륙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영감을 받아 균형을 취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능력에 크게 의존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컬럼비아호는 특별한 어떤 중대한 불균형에 휩쓸리지 않았기 때문에 잘 작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문가에게 인도된 컬럼비아호는 다행히 속도, 방향, 우주에 돌입하는 시간 등에 꼭 맞는 균형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착오 없이 작동하고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인 우리의 안내는 바로 우리들 영혼의 구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므로 절대적으로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 세상에서의 여행에는 경전과 성령이 안내자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예언자가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대변자로서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확실히 할 수 있나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예언자의 권고가 명백하고 직접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빗나가기가 쉽습니다. 어떤 회원들은 편리한 때에는 예언자의 말씀을 따르고 희생이나 심한 구속이 따를 때는 그의 말씀을 외면 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의 간결성을 잊고 어느 한 부분을 무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른 한 부분을 과장하여 강조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들에게 주어진 지침을 복잡하게 만들어 성스러운 간결성을 흐리게 하기도 합니다. 혹 어떤 사람은 풍문과 광신, 왜곡된 미덕과 오도된 가치, 그리고 얕은 종교적 구속의 희생물이 되기까지 합니다.

나는 내 경험으로 많은 인간은 유언 비어에 약하며 말일성도들도 이 문제에 있

어서는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너 들은 적 있니?” “너 알고 있니?” “비밀을 지킨다고 약속하면 내 말해 주지.” 주의를 끌기 위한 이러한 방법은 우리의 즉각적인 흥미를 끌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항상 뒤따르는 것은, 다음 번 감독이나 스테이크 부장이 누가 될 것인가에서부터 언제 복천년이 올 것인가 하는 데까지 떠도는 풍문입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은 주의 깊게 우리들에게 권고합니다: 믿음과 희망에 가득 찬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우리들과 더불어 그들의 영감을 나눕니다. 더구나 우리는 성령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언제나 그 영감의 근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슬프게도 나는 우리들 중 몇몇 사람은 여러 가지 점에서 무절제하기 쉽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영양 부족이 되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들 중 어떤 사람은 과도하게 먹습니다. 잠을 너무 많이 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수면 부족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상태나 몸을 돌보는 데 필요한 신경도 쓸 수 없는데 어떤 사람은 육체를 거의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돌보고 건강을 취급하는 일에 있어서는 가능한 모든 새로운 정보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확실하지만 주께서는 우리가 지혜와 상식을 사용하도록 기대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열쇠가 되는 말은 균형과 절제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알고 있는 모든 진리에 두루 적용되는 것으로 그중 어느 하나에 큰 비중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균형은 오락이나 유희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놀지 않고 일만 하는 것이 자니를 재미없는 사람으로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의 구세주처럼
 완벽하게
 균형을 이룬 인간으로
 우리 자신을 매어두고자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임을
 앓은
 참으로 용기를
 복돋우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족과 일과 영적인 발전에 대한 그의 책
 입을 게울리하면서 오락을 고집했다면
 자니는 단지 그 자신의 쾌락만을 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을 등
 한시킬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하잘것 없
 는 본보기가 어린이들로 하여금 일이나
 자기 이웃의 일보다 유희이나 물질적인
 소유를 더 중요시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
 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중용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현명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법사에 중용을 지켜야 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욕망’을 멀리하고 과도한 것을
 피하고 죄짓기를 그쳐야 합니다. 그들은
 여흥과 오락에서 실제로 영을 택하는 과
 정을 취해야 합니다. 행동만이 아닌 의
 도, 부분이 아닌 전체로서의 중용을 의
 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도중에 그들의
 행동은 이성적이 되어 힘들이지 않고 주
 님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복음교리,
 14 : 2)

신앙의 실천에 있어서도, 특히 우리가
 어느 한 부분에 전 노력을 집중하여 그와
 똑같이 중요한 다른 일을 등한시 한다면
 우리는 균형을 잃게 될 것입니다. 경전
 공부, 좋은 부모로서의 역할, 다른 사람
 에게 봉사하는 일, 교회의 부름, 이 모든
 일이 똑같이 우리의 시간을 쪼개어 주기
 를 원하는 것들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소홀히 하고 어느 하나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기대에 다 이르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우리들이 이것을 행
 하여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마태복음
 23 : 23)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때로 우리의 정원회 모임이나 복음 교
 리반이 영적 발전이나 봉사를 위한 제도
 이기보다 토론을 위한 비판장이 되어 버

립니다. 서로의 의견을 토론하는 동안 우리는 남편이 없는 부인들, 병든이들,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미쳐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오로지 훌륭한 대업에 힘써 노력하며 자신의 자유의사로서 많은 일을 행하며 많은 의를 이룩해야 하느니라.” (교성 58 : 27) 자유로이 자신의 시간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자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표준에 달하고 있습니까? 혹은 우리가 세상적인 일에 우리의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고 직업적인 일에 우리의 재능을 너무 많이 주어버리고, 단지 방종한 쾌락에 우리의 자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에 이르지 못했습니까? 주님의 순수한 가르침을 명심하고 있습니까?

유혹은 흔히 현학적이고 미묘한 것입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겨냥하여 우리가 그 유혹의 힘에 가장 약하여진 바로 그 순간에 때를 맞추어 우리에게 손을 뻗칩니다. 그런 방법으로 유혹자는 우리 생활의 균형을 파괴하기를 기도하고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줄 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니파이인들에게 나타내셨을 때, 그는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그리고 이 물음에 다음과 같은 말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니파이삼서 27 : 27)

우리가 균형을 찾으려 할 때, 우리는 모두 곤란한 문제와 유혹, 과도함과 부족함과 더불어 싸우지 않으면 안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개인적인, 문자 그대로의 구세주이시며 그의 속죄와 구원의 은총은 영적 육체적 죽음을 극복하게 하고 끝까지 참아내게 하고 우리의 영원한 집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압으로써 나오는 힘을 우리 모두는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구세주처럼 완벽하게 균형을 이룬 인간으로 우리 자신을 매어 두고자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임을 압은 참으로 용기를 북돋우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어떤 회원들은
편리할 때에는
예언자의 말씀을 따르고
희생이나 심한 구속이
따를 때는
그의 말씀을
외면하려 합니다.

재능과 자산을 주는 사람들에 의해 왕국은 건설될 것입니다. 오늘날 전세계에서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봉사, 선교사 기금, 신전 사업과 신전 건축, 풍부한 금식 헌금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진정한 관심, 가정 교육과 훈련 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각 스테이크마다 필요로 하는 사항이 다를 것입니다만 다 중요한 것입니다. 훌륭한 가정 복음 교육과 방문 교육, 인정스러운 봉사, 병든 사람의 방문, 타인애의 봉사, 효율적인 지도력, 우수한 교육은 어디에서나 끊임없이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 봅시다. 우리의

경적을 요란하게 울리며 택시와 버스들은 저마다 서로 밀치며 혼잡을 이루고 있었다. 벤자민 미살루차는 시장 거리에 앉아서 지나가는 자동차를 바라보며 손수건을 꺼내려고 하다가 이마를 찡그렸다. 그는 아내가 쇼핑을 빨리 끝내기를 바랐다. 필리핀의 날씨가 종종 그렇듯이, 후덥지근한 날씨였다. 그는 어서 집으로 가서 자녀들과 함께 편하게 있고 싶었다.

그때 그는 광장이 내려다보이는 건물의 한쪽 벽에 높이 달려 있는 간판을 보았다. 그 간판에는 “어떠한 성공도 가정에서의 실패를 보상할 수 없다.”고 쓰여 있었다. 그는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 그 말이 참되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그 무렵 나는 대략 설혼 싹쓸이 되는 젊은이로 네 자녀가 있었읍니다.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비교적 다른 필리핀 사람들에 비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세이부의 비밀

리처드 엠 롬니



그러나 나는 내 생활에 만족하지 않았읍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 이상의 무언을 찾고 있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삼 주일 전 수도인 마닐라에 살 때 이미 그를 방문한 적이 있는 바로 그 물문 선교사들이 그 건물에 살면서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의 말씀을 간판에 적어 놓았다는 것을 감히 추측도 하지 못했다. 남쪽의 대도시인 이곳 다바오에서도 역시 장로들이 그를 두 번 방문한 적이 있었다.

얼마 후에 벤자민 미살루차는 중부에 위치한 섬의 주요 지역인 세이부 시의 그의 제약 회사 옆으로 이사를 왔다. 미살루차와 그의 가족이 그들의 생활에 결핍된 것의 비밀을 찾아보려 한 것은 바로 세이부에서였다.

미살루차 가족은 그들의 새 집에 대하여 매우 기뻐했다. 세이부와 그 주변 지역은 필리핀 역사에서 중요한 지역이었다. 바로 세계 일주를 하려 했던 페르디난드 마젤란에 의해 이 섬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전래된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 시의 광장에는 마젤란의 것이라고 여겨지는 나무 십자가가 아직도 서 있다. 1565년부터 1717년까지 세이부는 스페인의 식민지 수도였다. 그래서 세이부의 주민들은 후에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싸울 때 핵심 역할을 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 중에는 게릴라 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세이부 시의 재산은 거의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러나 항구는 본래대로 남아 있었고 시는 복원 되었다. 오늘날 세이부는 섬들간의 교역과 국내 항공 노선의 중심지이며 농부와 공장 노동자와 사업가들이 밀집되어 있다. 여느 필리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미살루차 가족들은

“어떠한 성공도
가정에서의 실패를
보상할 수 없다.”

세이부 주민들이 잘 웃고 도와 주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되었다.

벤자민의 아내인 아벨리나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필리핀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가까와요. 우리는 가까운 가족들과 계속되어 있으며 다른 필리핀 사람들과도 역시 계속되어 있어요. 우리는 경험을 나누어 가지지요. 심지어 물질적인 것 까지도요.”

그렇게 서로 나누어 가지는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특별히 친절하거나 관대하다고 이목을 끄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지방의 사친회 회장은 바로 그런 케이스였다. 시작할 때부터 그녀는 미살루차 가족이 새로운 도시에 적응하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서 도와 주었다. 얼마 후에 미사루차씨는 사친회 임원으로 봉사하게 되었다. 그는 결국 사친회 회장도 역시 그 지방 말일성도 감독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호기심은 점점 커졌다.



“어느 날 나는 그들 두 사람이 집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들을 따라잡기 위해 급히 달려갔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의 교회에 대하여 좀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의 교회에 대해 나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훌륭한 두 젊은이를 추천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 후 열 달 동안 두 장로는 미살루차 가족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였다. 벤자민 미살루차는 선교사들이 누구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였을 당시의 선교사들과 전에 우연히 만났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과 즐겁게 환담을 나누곤 하였다. “그들은 우리집 문을 두드리고 나에게 내가 가장이냐고 물었어요. 나는 어떤 집안 일을 하느라 덥고 땀이 나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니오, 나는 단지 여기 관리 인입니다.”라고 한 일이 있었다. 그것은 가족들에게 늘 농담으로 말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나의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아벨리나는 항상 찬물이나 쥬스, 케익 또는 시오파오 (소시지와 달걀로 만든 하얗고 물렁물렁한 중국식 쯤빵)를 준비했다. 물론 지금은 다섯으로 불어난 나의 자녀들은 진지한 복음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농담을 하면서 선교사들과 어울리곤 했다.

“나는 아직 물문경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답을 듣고 싶어요” 벤자민은 말했다. 그들은 성경에서 답을 찾아 주었어요 나는 내 스스로 답을 얻지 못했던 문제들에 대해 그들이 항상 답변을 해줌으로 완전히 당혹케 됐습니다.” 서서히 그의 당혹함은 이해로 바뀌게 되었다. 선교사들은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답을 찾을 수가 있었다. 그는 가족 회의를 열었다.

“이 점에 관해 개인적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말했다. 다음 가족 회의에서 그들은 모두 말일성도가 되기로 찬성 투표를 했다. 가

죽은 1978년 4월 29일 토요일에 모두 침례를 받았다.

“우리가 회원이 된 이후 몇몇 나의 친구들이 적대 감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미살루차 형제는 말했다. 그는 보험 회사에서 일하게 됐으며 그가 하는 일은 꾸준히 성장했다. 나의 친구들은 내가 2년 안에 먼저 다니던 교회로 돌아갈 것이라고들 말했읍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참된 교회를 찾았으며, 나의 가족의 유대는 굳건해졌고, 자녀들은 기술을 개발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것을 배우고 부끄러움을 이기는데 있어서 현저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요즘 미살루차 가족은 세이부시 근교 라허그에 있는 LDS 스테이크 본부에서 가까운 맑고 하얗게 칠해진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들은 세이부시 필리핀 스테이크 세이부시 제일 와드의 회원이다. 지금 45세인 미살루차 형제는 장로 정원회 회장이며 스테이크 음악 위원장이다. 그의 아내는 주일학교 교사이며 스테이크 상호 부교회 음악 지도자이다. 21살이며 장녀인 배비트는 스테이크 활동 위원회 회장이며 상호 부교회 청년반 사회관계 교사이다. 19살인 장남 벤슨은 스테이크 청년 역원이며 선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16살 된 딸 벨란다는 와드 초등학교 교사이며 15살인 벨민은 교사 정원회 제 일 보좌이며 동생인 12살 된 벤젤린은 온 가족이 서로 서로 잘 지내는 것을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물론 미살루차 형제가 마지막 결정을 내리지만 가족들은 구두로 혹은 구두 투표로 결정을 한다. “우리는 가족들에게

의견을 말하도록 합니다.” 미살루차 자매가 설명했다. “문제가 생기면 가정의 밤에서 함께 의논하지요. 또한 좋은 일들도 가정의 밤에서 함께 나누답니다.” “좋은 일들 중에는 음악도 들어 있어요.” 벤젤린이 말했다. “우리는 소프라노, 앨토, 테너, 그리고 베이스 할 사람이다 있기 때문에 4부로 나누어서 항상 노래를 부른답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기타나 피아노 혹은 두 악기를 다 연주할 수 있어요” 가정의 밤에서는 영적인 공과도 또한 포함된다. 즉 마닐라 신전 건립을 위한 모금 계획의 일부인 “계단” 같은 스테이크 연극을 준비하는 것인데 벨민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유익한 영화가 상영되고 있으면 영화를 보러 도시로 가기도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피자를 먹으러 가기도 한다. “우리는 밥, 오징어 그리고 열대성 과일같은 토속적인 필리핀 음식을 좋아하지만 피자도 또한 좋아합니다.” 벨민의 의견이다. 가족간의 협동 정신이 미살루차 가족의 생활 근본이 되고 있다. “우리에게는 각자가 하도록 지명받은 임무가 있어요” 벨린다가 말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을 도와 숙제나 접시 닦는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버지와 함께 가정 복음 동반자로 일해 오고 있는 벤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친구들과 함께 있는 자리라도 아버지가 같이 계신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또한 나의 친구이니 까요. 그리고 베비트 누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누나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누나는 이해해 줍니다.”

전쟁 중에 많은 시 기록들이 없어졌지만 미살루차 가족은 4대 가계도를 거의

필리핀 사람들이
 늘 행복한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말일성도를 만나게 되면
 그들은
 더 큰 감명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회복된 복음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겐
 어떤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 있는 연차 대회에 부모님이 참석하신 일 등에 관해 기록하고 있다.

“나의 감정, 생각, 결정, 경험담, 활동 등을 포함시켜요.”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네가 특별히 좋아하는 남자 아이들도 기록에 포함 시키잖아!” 언니가 씩 웃으면서 끼어 들어 모두가 웃었다. 지역 텔레비전 방송국 기자로 일하고 있는 베네트는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가족이 많이 도와 주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사진 기사와 함께 돌아다니면서 지역 사회에서 중요하고 특별한 일들을 촬영합니다.”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시장이나 다른 지역 관리자들과 대담을 가졌다. “하지만 나는 가끔 화재나 권총 강도 또는 노상 강도를 목격하게 되지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보게 되지요. 여러분이 집에 돌아 가서 우리 가정에서 느끼는 것과 같은 훌륭한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주님께 매우 감사를 드릴 것 입니다.” 그녀는 계속 말을 했다.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정을 주셔서 집에 가서 그것을 얘기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부모님들과 나의 남, 여 동생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가족으로서 함께 일요일에 교회에 간다든가 주 중에 다른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 같은 많은 일들을 하는 동안 가족들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녀는 대담을 나누는 사람들이 주는 커피를 그녀가 마시지 않는 이유를 그들이 알기 원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말일성도가 되는 것에 관해 질문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것은 가끔 지혜의 말씀에 관해

완성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다른 자료들을 찾고 있다. 베네트는 묘비에서 이름과 날짜들을 수집하기 위해 공동 묘지를 찾아 간 것을 기억하고 있으며 벤젤린과 벤슨은 그들이 갖고 있는 기억의 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벨렌다는 규칙적으로 개인 일지를 기록하고 있다. 그녀는 일지 안에 이 지역에 곧 조적될 새로운 스테이크에 관한 일이나 마닐라에 곧 세워질 신전에 관한 일, 그리고 스펜서 더블류 킴벌 대관장님의 말씀을 들을

토론할 기회가 됩니다.” 라고 그녀는 말하면서 또한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의했다. “방송국에서 어떤 사람은 연출자가 좋지 못한 말로 고향을 지르는 것 같은 ‘노골적인 말’로 특별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요. 특파원 뿐만 아니라, 나는 또한 몇 편의 쇼를 연출하는데, 연출하고 있는 동안 ‘왜 당신은 화를 내지 않으며 다른 사람과 같이 욕설을 하지 않으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지요. 하지만 나는 불쾌한 말을 하지 않으면서 화를 낼 수가 있으며 좋은 방법으로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활동 외에도 미살루차 가족은 그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또한 잘 알려져 있다. 자녀들 모두가 국민학교 부터 고등학교까지 우등생이거나 쪽 우등생이었다. 베베트는 차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벤슨은 지금 그의 반에서 2등이다. 현재 속해 있는 고등학교 반에서 2등을 하고 있는 벨렌다는 국민학교를 역시 2등으로 졸업했다.

“우리는 아직 징크스를 깨지 못했습니다.” 미살루차 형제가 혼자 껄껄거리며 말했다. “우리는 지금도 수석 졸업생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자녀들이 우등생이 안됐다 할 지라도 그는 그의 자녀들을 격려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고 재빨리 덧붙여 말했다.

모든 사람은 가끔 실패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어야 합니다. 다음에 여러분은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받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고 자기 발전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한 그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그들이 교회에서의 활동이나 학문적

또는 직업적인 성취감, 그리고 가족의 단합 등에서 기쁨을 얻고 있다 할 지라도 미살루차 가족의 가장 큰 기쁨은 아버지가 세이부로 이사와서 알게 된 행복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을 때 이다.

“나는 이 교회가 유일한 참된 교회라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벨민은 말했다.

“나는 가끔 친구들에게 어떤 나쁜 짓을 하지 말라고 충고를 하면 그들은 나의 생각이 옳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담배의 해독에 관해 설명하면 그들은 그래! 몰랐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전하는 일종의 경고입니다. 나는 또한 그들에게 학교 수업에 결석하지 말고 나쁜 영화를 보러 가지 않도록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벤슨이 덧붙여서 말했다. “내겐 이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아는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녀을 수 없이 보이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들은 “너는 왜 내가 변하길 원하니? 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고집이 썩니다. 그러나 그들을 좀 더 행복하게 해주려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벨렌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매일 기도로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나의 급우들은 교회에 관해 항상 흥미가 많습니다. 그들이 내가 말일성도라는 것을 알았을 때 가끔 나에게 모든 종류의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면 ‘너는 왜 알코올이 들어있는 음료를 마시지 않니?’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그것은 우리 교회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며 건강에 해롭다고 이유를 말해 줍니다.”

미살루차 형제는 친구인 펠리 유물과 복음을 나눈 것에 관해 이야기했다. 미

살루차 형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는 나에게 왜 말일성도가 되었는가를 물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나의 많은 궁금증을 풀어 줄 수 있는 교회, 또한 가르친 것을 실천에 옮기는 교회 그리고 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교회를 찾고 있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유물 형제는 두 달 보름이 지난 후 교회에 가입했다. 상소리를 하고 도박을 즐기며 유물 형제의 집 앞에 쓰레기를 내다버리는 이웃이 있었는데 그를 대하는 유물 형제의 태도가 바뀌었다. 미살루차 형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유물 형제는 그를 좋은 이웃처럼 대하기 시작했으며 그에게 좋은 기독교인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전에 불쾌했던 이웃은 사는 방법이 바뀌었으며 교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는 다른 가정과 복음을 나누었고 그들은 침례받았으며 또 그들은 선교사들에게 다른 가정을 소개해서 또 교회에 가입시켰습니다.”

벤슨은 더욱 분명한 경험을 갖고 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다른 사람이 듣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하기 전에 그들과 친구가 되어야 하며 그들을 편안하게 느끼게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 학교는 섬 곳곳에 있는 학생들이 다 다니기 때문에 자연히 여러 종류의 종교가 언급되는 것은 전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말일성도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힘들지만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확신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복음을 나누는 데 있어서 필리핀 사람들의 자세는 교회가 발전하는 것에도

울 것입니다.” 세살루차 자매는 말했다. “우리의 생활에서 중요한 것을 나누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지요. 복음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늘 하던 대로 복음을 전한다면 이와 같은 자세는 복음의 빛으로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늘 행복한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말일성도를 만나게 되면 그들은 더 큰 감명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회복된 복음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것이 미살루차 가정을 방문한 비회원들의 마음속에 그와 같은 기쁨을 담고 나오는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가정의 밤을 가르치거나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 가정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는가를 말해 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같은 경험을 그들과 나눌 수 있으며 그들의 생활과 관련시켜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살루차 형제는 말했다.

미살루차 가족이 세이부 시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복음은 그들에게 비밀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서 현재나 미래까지 완전하고 행복한 가정 생활을 영위하는 방법을 찾게 되었다. 그들이 그것에 관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오랫동안 감추어질 수 없는 비밀이 될 것이다. *

광주 스테이크 대회



대전 광복

광주 스테이크는 스테이크 센타 건립후 처음으로 갖는 1983년 전반기 스테이크 대회를 1월 29일과 30일 양일간에 걸쳐 충장로에 위치한 광주 스테이크 센타에서 가졌다. 29일(토요일) 오후 5시부터 시작된 신권 역원회에는 150여 명의 신권 역원들이 참석하여 한 인상 장로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이번 스테이크 대회에서 특히 강조된 사항을 정리해 보면 첫째, 신권 선교 사업은 생명의 피와 같이 중요한 것이므로 회원들은 주위의 비회원들에게 모범을 통하여 그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것과 둘째, 회원들이 교회 내에서의 활동을 강화하여 보다 활발한 봉사를 하도록 하며, 셋째 죽은 자를 위한 신전 사업을 위하여 열심히 준비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성공을 위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지 않은 회원은 실패를 위한 계획을 세운 것과 같다고 말씀하였고, 특히 광주 스테이크 신권 역원들은 모두 "약대 털옷"을 입자고 강조하였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입었던 옷이 약대 털옷인 것과 같이 모든



회원이 그 옷의 의미를 항상 기억하며 모범된 생활을 할 것을 강조하였다.

박 하천 광주 스테이크 부장은 '83년도 목표를 발표하면서 선교 사업과 역원 훈련 강화 그리고 스테이크내의 모든 조직의 역원을 임명할 것을 다짐하였고, 김 제한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는 매일 기도하는 생활의 중요성과 순종하는 생활의 기쁨에 대하여 말씀하였다.

한편 스테이크 대회 기간 동안 산수 와드에서는 시화전을 가져 아론 신권 및 청년 회원들의 솜씨 자랑도 아울러 하였다.